DOOSAN ART SCHOOL

2014. 10. 15 (WED)

<사진의 역사, 그리고 미술과의 관계>

신혜영(미술비평가)

1. 19세기 사진의 탄생과 전개

1) 사진의 발명(invention) 혹은 발견(discovery): 니엡스의 헬리오그래프, 다게르의 다게레오타입, 폭스 탤벗의 칼로타입 등.
2) 초창기 사진의 쓰임 및 예술과의 관계
3) 19세기 사진의 경향(기술 vs 예술)
- 실제의 정확한 재현(스트레이트 사진)
- 개인의 표현적 가능성(회화주의 사진)

2. 20세기 사진의 발전과 전개

1) 사진분리파(The Photo-Secession)를 시작으로 한 순수예술로서의 사진
2) 미국 형식주의 사진: 흑백(gelatin silver print)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 사진(세부묘사, 구도, 계조, 시점, 선명도 등 형식적 요소를 중시)
3) 유럽 아방가르드 사진: 포토몽타주, 이중노출, 포토그램, 솔라리제이션 등의 기법으로 러시아 구성주의/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바우하우스 등 아방가르드 미술과 관련.

3. 1960년대 이후 현대사진의 태동

1) 개념미술과 사진: 퍼포먼스, 신지형학, 대지미술 등이 사진의 갤러리 진입에 있어 가교
2) 팝아트와 사진: 당시의 생활양식 및 소비주의와 관련 사진의 적극적 사용
3) 컬러사진의 등장: 흑백사진의 형식주의 탈피

4. 현대미술로서의 사진 (1990년대 이후)

1) 미술과 일상의 관계에 대한 고찰(일상적 매체로서의 사진)
2) 사진의 비판적 실천의 경향(정체성 재현의 문제)
3) 포스트모던적 구성(construction)에 대한 강조
4) 텍스트와의 관련성(개념, 제목, 비평, 이론 강조 경향)

➔ '예술사진'에서 '예술로서의 사진'으로 (사진 실천practice)

미학적 특질을 가진 구체적인 예술작품(초창기 회화를 닮으려는 사진)으로서의 사진에서 → 갤러리, 미술관, 작품집 등 **예술제도 내에서 논의되는 실천으로서의 사진**(다큐멘터리, 패션, 사회조사 관련 출판물 등 다른 맥락에서 제작된 이미지가 이후 전시공간으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포함)으로 확장.

➔ '매체적 본성'에서 '의미의 해석'으로 (사진 이론theory)

사진의 기술 및 사실주의적 특성에 관한 주목에서 → 의미와 의사소통(기호체계), 시각문화와 재현의 정치학에 관련된 보다 넓은 이론적 이해 및 논쟁으로 확장.
- 관객성(spectatorship) 중시
- 문화적 이해와 지각의 관습에 주목
- 사진의 용법 및 맥락화가 의미를 결정